

SK, 인천정유 이견 UBS 계약 파기

FT, 인천정유 가치 1/3 수준으로 평가절하 ... 2007년 런던증시 상장

SK가 인천정유의 가치평가에 관한 이견으로 런던증시 상장문제를 놓고 UBS증권과 맺은 자문계약을 파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2월11일 보도했다.

계약파기는 SK가 당초 희망한 인천정유의 가치를 UBS측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잡으려는데 따른 갈등 때문이라고 FT는 전했다.

SK는 인천정유 총 발행주식 30% 가량을 12월 런던증시에 상장해 7억5000만달러 가량의 조달을 희망했으나 <시장사정>을 이유로 2007년 초로 연기했었다.

FT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의 상장자문에 있어 수년간 수위를 지켜온 UBS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인천정유의 런던증시 상장 여부에 암운이 드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UBS는 앞서 2002년 반도체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에 대한 등급전망을 낮춤에 따라 회사와 마찰을 빚는 등 한국기업들과 여러 차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계약파기와 관련 UBS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FT는 덧붙였다.

한편, SK는 인천정유 상장을 앞두고 메릴린치를 주간사로 결정하기 전 많은 여러 은행과 접촉했으며 UBS는 애초부터 선택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11>